실천 목표	얼쑤 동래 데이케어	제 2021 - 01호
어르신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가꾸는 얼쑤 동래데이케어 주간보호		발 행 인 : 김 지 연 담 당 자 : 이 영 애 발행일자 : 2020. 12. 25

2021년 띠는 소
행복한 일로 가득하소
사랑으로 가득하소
복으로 가득하소
당신의 곁엔 내가 있소
올해는 힘든일도 없소
2021년은 행복한 일로 가득하소
새해복 많이 받길 바라옵소

* 01월 일정 안내 및 알림 *

♣ 안 내

- 01월 6일 생신잔치가 있습니다.
  이양선어르신(양력10.18) 강필연어르신(음력11.20)
  김정임어르신(음력11.22) 박재순어르신(음력11.28)
  손필순어르신(음력12.05)

♣ 2021년부터는 비급여부분인 식대가 인상이 됩니다.
중식,석식 각 3,000원이고 간식은 2회 1,000원 그대로 입니다.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으니 보호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부탁드립니다.

♣ 코로나가 갈수록 격상되고 있어 근심이 크시겠지만 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 방역과 소독에 힘을 다하고 있으니 각 가정에서도 외출을 금해주시고 어르신께 KF94마스크를 하실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시변경 및 2021년 주야간보호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동에 관한 안내문은 어르신들 개인별로 서류발송 하였으므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 **본인부담금 계좌번호 :**
하나은행 (주)동래데이케어 186 - 910002 - 83704

♣ 공지

- 2020년 12월 '급여제공기록지' 부본 은 각 가정으로 우편발송하였고, 확인자서명은 부득이 어르신께 직접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댁으로 보내드리는 계약서와 급여제공기록지는 꼭 보관해두시기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 김지연 (H.P 010-8805-0086)

1. 뇌졸중이란?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로 뇌 조직이 망가져 버려 신체의 기능적 장애를 남기는 병이다. 최근 뇌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2018년도 사망원인통계에서 뇌혈관 질환은 국민 사망 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은 반신마비, 치매 등으로 본인,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뇌졸중은 출혈성 뇌졸증과 허혈성 뇌졸중으로 구분된다.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 뇌 조직으로 혈액이 나와 뇌를 망가트리는 질환이며,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으로 혈액이 가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결국 뇌출혈, 뇌경색 모두 혈관에 병이 생겨 뇌 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는 병으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뇌졸중의 다양한 증상

뇌졸중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정작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는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018년도 통계청의 시군구별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52.7%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보통 뇌졸중이라 하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뇌졸중은 생각보다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두통과 구토, 발음장애, 시야/시력장애, 연하장애, 인지기능저하, 어지러움, 반신마비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증상이 환자마다 한가지 증상만 또는 여러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뇌졸중이 발생되는 뇌 부위와 범위에 달라서이다. 위에 증상들 중 여러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뇌졸중이 발생된 범위가 크고 뇌 중요 부위에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뇌졸중은 아주 위험하며 긴급해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다.

3. 뇌졸중 검사 및 치료

1) 뇌졸중 의심 환자

뇌졸중 의심 환자가 의료 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CT촬영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뇌출혈, 뇌경색 여부를 1차적으로 알게 되며, 뇌경색이 의심될 경우 뇌혈관 CT촬영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시행하여 막힌 혈관을 찾아낸다.

2) 뇌출혈로 진단된 경우

출혈의 양과 뇌 발생 부위에 따라서 수술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출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의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하고 적극적인 혈압 관리를 시행한다.

3) 뇌경색으로 진단된 경우

과거 주된 치료방법으로 혈전용해제가 있었지만, 혈전용해제가 뇌졸중 치료에 효과가 있으려면 뇌졸중 의심증상이 발생한 지 3시간 이내에 사용되어야 했다. 또한 3개월 내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환자의 출혈 의심 증상이 동반된 경우 등에서는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손상되어가는 뇌 조직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환자는 심한 장애가 남은 채 살아가야 했다. 또한 혈전용해제도 뇌혈관을 다시 개통시키는 경우가 60% 밖에 되지 않아 40% 정도의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란 시술적인 방법으로 90%에 육박하는 뇌혈관 개통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 획기적인 방법은 방사선 장비를 이용하여 막힌 뇌혈관을 찾아내고, 미세한 도관을 막힌 혈관까지 들어가 직접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과거 시술용 기구들이 발전되지 못하였을 때는 혈전용해제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못하여 널리 사용되지 못했던 치료법이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기구들이 발전하고 이를 사용하는 기술 또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면서 그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기존에 증상이 발생하고 3시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혈전용해제와는 다르게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경우에 따라서는 뇌졸중 의심 증상 발생한 지 24시간까지도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4. 뇌졸중 예방의 중요성

최근 뇌졸중의 치료기법이 발전되어 장애가 남는 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손상된 뇌 조직은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발생 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다.

1)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선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각각의 질환들은 뇌졸중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우선 이들 질환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뇌졸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질환이 있는지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이들 질환이 있다면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금연, 절주

금연, 금주는 필수이다. 담배를 피우면 교감신경을 자극해 동맥경화증이 유발되고 뇌졸중 위험이 2~3배 증가한다. 또한 과음은 심부정맥, 고혈압 및 뇌혈관수축 등을 일으켜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

3) 건강검진 시행시 MRA, 경동맥 초음파 검사

추가적으로 뇌졸중의 발생되기 시작하는 50~60대에는 건강검진 시행시 뇌혈관의 상태를 알기 위한 뇌혈관 MRI,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사전에 해보는 것이 좋다. 최근 흔히 시행되는 뇌혈관 MRI, 다른 말로 'MRA'라고 불리는 검사는 조영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뇌혈관 상태를 비교적 상세히 볼 수 있다. 또한 시행하는 시간도 일반 진단 목적의 MRI보다 짧아 큰 부담감 없이 시행할 수 있다. 뇌혈관 MRI를 통해서 뇌동맥류, 뇌혈관 협착, 뇌동정맥 기형과 같은 질환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이들 뇌혈관 질환을 치료를 함으로써 사전에 효과적인 뇌졸중 예방을 할 수 있다.